군사 파쇼의 절대 권력을 깨고 당당히 부활하는 모습의 박종철을 그린 이 그림은 더도 덜도 아닌 바로 시대정신 그 자체였다

신학철, 박종철은 부활한다」

민주화로 부활한 박종철

신학철, 「한국근현대사 연작」

「박종철 反고문전」에서 또 하나의 걸작은 신학철 형의 작품이다. 박불똥이 해학과 풍자로 그 삼엄했던 시대를 관통했다면, 신 형은 무게와 뚝심으로 시대를 제압했다. 군사 파쇼의 절대 권력을 깨고 당당히 부활하는 모습의 박종철을 그린 이 그림은 더도 덜도 아닌 바로 시대정신 그 자체였다. 전두환은 결국 유리 조각일 뿐,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역사적 필연이었다.

'박종철은 부활한다.' 신학철 형은 역사적 낙관주의자로서 누구보다도 여유로웠고 자유로웠다. 이 작품은 세로가 긴 수직형의 작품이다. 작품은 우리 앞에 직립한 자세로, 한 치의 흐트러짐도 허용치 않겠다는 듯 정면으로 서 있다. 이야기는 밑에서 위로 전개된다.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다. 민중의 힘, 그 대변자가 박종철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민중은 죽지 않고 승리한다.

청회색조의 색깔에서 초록색으로 나아가는 배색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초록색이야말로 생명의 색깔 아닌가. 그는 노동의 작가이다. 화면 구석 구석, 어디 하나 기교를 부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농부가 논밭을 갈 듯 그는 시종일관 노동으로 그림을 그린다.

경북 김천 출신인 그는 풍모도 천상 타고난 농부이고, 노동자이다. 험난한 세상을 노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혹한의 겨울 공화국에서 믿을 게 무엇이었겠는가. 자신의 확인, 살아있음의 증거,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신념과 '내일은 그래도 온다'는 낙관을 담보해주는 것, 그것은 노동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움직임으로써 무의식의 차원까지 붓을 놀림으로써 배반과 거짓, 그 절망과 허망함을 정면으로 맞받아 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노동력은 실로 엄청나다. 「한국 근현대사」 연작 - 그것이 붓으로 그려졌든, 아니면 꼴라쥬로 만들어졌든 - 그의 노동력이 가히 초인적임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의 작업은 매우 특이한 구도를 가졌다. 작품이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이라는 사실이다. 간단명료한 도상에 엄청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엮어내는 그의 도상학은 매우 독창적이다. 그가 꼴라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그의 이야기 구조를 지탱해준 세포 혹은 단위로서의 이미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범람하는 인쇄(출판)물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꼴라쥬 작업에서 얻은 경험을 회화로 옮겼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도상의 그림이지만, 그의 화면에서 담겨지는 이야기의 양은 엄청나다. 이 풍부한 이야기성 또한, 신학철 작품의 미덕이다.

이야기성의 배제가 곧 현대성이라는 형식우위주의자의 주장을 그는 일축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는 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작가가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형식적 구조의 튼실함을 보면, 내용과 형식의 상관관계를 꿰뚫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믿음대로 박종철은 부활했다.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결국 우리는 민주화를 쟁취한 것이다.

www.oksanglim.com

임옥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광주교육대학 교수 (1979-81)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1981-92)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 졸업 (1986)
민족 미술협의회 대표 (1993-94)
저서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
벽 없는 미술관